

충청 표심과 정치 발전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충청권 표심의 특징은 절묘하다. 첫째, 견제와 균형이다. 19대 총선에서 충청 의석은 여, 야 12 대 10으로 양분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면서 부침 속에서도 지역정당의 명맥을 놓지 않던 대로 지역정당에게도 3곳은 남겨 주었다. 충남은 새누리 4: 민주 3: 선진 3으로 황금분할되었다. 59.2% 전국 최고 투표율의 최대 격전지 세종시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소속 정당이 나뉘었다. 교육감은 보수성향 후보가 네 명으로 분산되었음에도 보수성향 후보를 당선시켰다. 17대 대선에서도 충남의 후보별 득표율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34:33:21%였다.

둘째, 판단 준거의 독특성과 일관성이다. 충청이 권력의 변방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정당 몰표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집권세력으로 편입되면 특정 정당 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특정정당 바람과 분할 구도의 양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청지역이 여야, 영호남 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14~16대 대선에서 충청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연속 당선시킨 힘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실리적 유연성과 유동성이다. 충청 유권자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조사와 선거결과가 다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정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일찌감치 뚜렷하게 감지되었다. 선거 결과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정당의 존재를 전망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1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정치 틀에서 볼 때 현실 가능성이 없던 일들이 현실화되었다. 재외국민투표, 국민참여경선, 모바일투표, 청년비례대표 등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주의 극복형 중복입후보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인 한국형 석패율제를 검토하면서 여야가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

다는 상징이 될 만한 당선자는 많지 않았지만 지역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그리고 17대 총선부터 지역정당의 지역 득표율이 30% 이하로 하락하면서 지역주의가 완화된기 시작한 충청에서 지역정당이 패했다.

지역주의 해소는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선결요건의 하나이다. 영호남의 패권지향적 지역주의가 철옹성으로 남아있지만 3김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2002년 이후 이념투표 및 세대투표의 등장으로 지역 패권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17대 대선 당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충청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와 관심 이슈는 호남,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달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별로 이전과 뚜렷하게 달라진 투표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남에서는 무소속이었지만 친노인사가 당선되었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지만 44.6%나 득표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10%대로 득표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있었다. 민자당 3당 합당으로 지역주의 정당정치 체계의 기초가 된 PK, TK 정치적 연대의 균열 조짐이 극미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의 충청 지역정당의 패배는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 직전 한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0%가 넘었다. 총선 이후에도 세종시 건설의 방향과 완성도, 지역정당의 조직 재정비 정도, 대선을 앞둔 보수 연합 가능성 등 가변적 요인들이 지역정당의 향

방을 가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정당이 위축된 당세를 회복하고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당명 변경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출신지 중심의 “정서적 지역주의”를 거주지 중심의 “정책적 지역주의”로 전환하는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당적은 버리지만 150석의 여당 출신이다. 충청 표심이 지역정당의 구조적 한계를 실감하고 출신지 중심의 “정서적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지역정당에 제동을 건 직후이다.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원과 더불어 정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과 중복논쟁, 대선 정국 관리, 국회선진화법 적용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 운영의 난제들도 풀어야 한다. 한국 국회는 다수제와 합의제 원리가 혼용되고,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활동이 마비된다. 대통령, 시민단체, 노조 등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해 국회의 자율성도 약하다. 헌정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이 역대 선거에서 보여준 충청 표심의 뛰어난 견제와 균형감각, 판단 준거의 일관성, 실리적 유연성과 유동성을 십분 발휘해 한국 정치발전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꽃처럼 꿀벌처럼



성기훈
충도일보 상임고문

신부에게 꽃처럼 신랑에게 꿀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 꽃은 시들거나 벌레 먹은 꽃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며 향기가 나는 꽃입니다.

또 하나 꽃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꿀이 있지요. 여기서 꿀은 부부 간의 금실과 가정경제를 나타냅니다. 이 꿀을 사랑하는 꿀벌과 함께 알콩달콩 먹으면서 사랑을 꽃피우고 집안 살림도 키웠으면 합니다.

신랑에게 꿀벌처럼 살라했죠. 꿀벌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죠.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 위에 성실하고 무엇보다 조직적인 생활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남편과 아내의 특징이나 능력을 꿀벌과 꽃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꽃과 꿀벌의 관계입니다. 꿀벌이 부지런하다 하나 일할 터전 꽃이 없다면 그 부지런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꿀벌이 없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도 빛이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 꿀벌과 꽃은 상생(相生)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존재하는 것,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 말입니다. 부부는 이처럼 공생 공명 관계임을 명심하고 꽃과 꿀벌과 같은 관계로 아름답고 건강한 평생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례가 땀질 주례

앞에 예시한 주례는 자주 인용한 것으로 5분 이내의 분량이다. 덕담 위주로 '잘 살아라' 당부 하는 식이다. 2001년부터 횟수가 부쩍 늘어나 현재까지 1,500건에 육박하다 보니 아마추어 수준은 벗어난 것 같다.

1985년 5월 어느 일요일 아침, 전화벨이 나의 단잠을 깨웠다. 팔을 뻗혀

전화기를 귀에 댔더니 “저 ○○인데요. 오늘 낮 제 여동생 주례 줘 서주셔야겠어요.”하는 게 아닌가? 이 무슨 날벼락. 주례를 서달라니... 그것도 5시간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땀질 주례를... 순간 나는 당황했다. 주례를 서 본적이 없으니 더했다.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가 허락하고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주례를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목욕하는 버릇은 이때부터 생긴 것 같다. 인생의 새 장을 여는 커플에게 혼례식을 집전하는 책임자로서 육체와 정신을 정갈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메모지에 주례사 내용을 빼곡히 썼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주례석에 섰다. ‘아뿔싸’ 메모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릿속과 등에서 식은땀이 도랑을 이루었다. 주례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

나의 땀질 첫 주례는 이렇게 끝이 났다.

미혼여성 실속 챙긴다

몇 해 전 D일보가 연애와 성에 대한 특집을 다뤘다.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남자의 외모와 경제력 중 어느 쪽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서 90%가 경제력 쪽에 줄을 섰다. 외모에 관심을 두는 것은 중고생이나 소개팅 때나 있는 일이고 결혼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결혼은 현실이라는 실리적 계산이 우세했다.

여성들의 결혼 상대에 대한 실속 챙기기는 경제력 탐색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적 능력에도 적극적(59%)이었다. 미혼 여성의 성 가치관과 결혼관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실리적,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성격이나 성 문제 등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살아온 우리나라 부부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이란 것은 어렵듯이 인지되어 왔던 것.

행복가정재단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행복 부부지수는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우리나라 남성은 어릴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점잖고 무게를 잡는 스타일로 성장해오지 않았나 싶다. 어쩌다 공연장이라도 가보면 여자들은 웃고 울고 들뛰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석고상 같은 표정으로 자리지킴이가 되는 것을 보면 성장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여성의 경우도 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망측스러운 일이기에 오랜 세월 안으로 새기거나 참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길들여져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애관계와 태도에서의 성차(性差)의 보고(연세대 심리학과 주현택 교수)를 보면 혼전 순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관이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세대의 급속한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부는 비익조와 같아

옛날 ‘비익조’라는 총각새가 살고 있었다. 이 새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가 없는 불완전한 새였다. 온전치 못하니까 하늘을 훨훨 날 수도 없었고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늘 수심 속에 보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 처녀 비익조가 나타났는

OPINION

데 이 새 역시 한쪽 날개와 눈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새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이 온전치 못한 암수 비익조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하나로 합하고 보니 두 개의 날개와 두 개의 눈을 갖는, 보다 완전한 비익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부란 불완전한 비익조의 만남 같은 그런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제대로 된 것을 할 수도 없고 이를 수도 없는 존재이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사람은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도 큰 길도 부부가 품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각기 제자리에 서 있을 때보다 서로에게 다가설 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른 것이 많은 남녀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면서 온갖 고락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에서 말투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이 경외롭고 신비롭기만 하다.

이 같은 금실 좋은 부부 관계가 결혼 언약에 의해 당연히 주어지거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을 2인3각처럼 서로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면 그렇게 좋은데, 왜 그곳엔 짙은 먹구름이 자주 끼고 태풍과 눈보라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것일까?

미국 코넬대 심리학자 하잔 박사가 37개 문화권 5천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열정적 사랑의 유효기간은 18~30개월이었다는 것. 사랑에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렸는데 말이다. 그것은 혈액에 옥정을 일으키는 뉴트로핀 호르몬이 소멸되고 대신 상대방을 귀엽게 여기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늘어났기 때문이란단.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서로 똑같은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니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갈등을 부르고 서운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로운 부부, 그렇지 못한 부부가 생긴다. 부부는 성장과정이 다르고 몸속에 흐르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집에 살 때 다투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씹씹이가 헤픈 남편에겐 자린고비 아내의 견제가 필요하고, 급한 성격의 아내에겐 느긋한 성격의 남편이 제 격이라는 것.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내세워 헐뜯고 홍보는 등대립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조절하고 중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의 유무가 정말이지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 간 의견이나 행동이 엇갈릴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즉 해선 안 될 말이 있다.

첫째, 평가형과 멸시형 언어로 '형편없어', '왜 그 모양이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등은 기분 좋을 때라도 입 밖에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둘째,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배우자 가족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 셋째, 책임전가형(너 때문) 벽 쌓기형 등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부부가 경쟁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가려서 한다. 둘, 언쟁을 할 때 저주는 미덕을 발휘한다. 셋, 습관적인 스킨십에 힘쓴다. - 출퇴근 시 가벼운 입맞춤하고 함께 다닐 때 손잡고 칭찬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면 된다. 넷, 잠잘 땐 반드시 같은 침대에서 잔다. 다섯, 사랑은 즐겁게 한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하는 사랑은 몸에 독이 되니까.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 확정...부가 가치는 15조원 목표

충남 최초 '항만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다. 2040년까지 도내 항만 총 물동량을 6억톤으로 높이고, 부가가치는 15조원으로, 종사자는 45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5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항만정책심의 회를 개최하고, '충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핵심 항만지역 구축'을 항만발전 중·장기 비전으로 정했다. 목표는 2010년 1억1,700만톤인 충남 항만 총 물동량을 2030년 3억9,500만톤으로, 2040년에는 6억톤 향상으로 잡았다. 도내 물동량 처리 비중을 현재 10% 안팎에서 2030년 17%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 부가가치는 2009년 2조원(추정)에서 2030년 9조원으로, 2040년에는 15조원으로 높이며, 항만산업 종사자는 2009년 4만6,000명에서 2030년 25만명, 2040년에는 45만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장동력화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해양관광산업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항만 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등을 4개 전략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로 세웠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항만개발의 지역경제 성

장 동력화 분야에서 ▲항만SOC 적기 개발 및 확충 ▲배후수송로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당진항 송산지구 공용부두 개발 ▲세종시 관문 인프라 확충 등을, 항만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분야에서는 ▲에너지산업 지원 및 항만특화 개발 배후 물류단지 확충 ▲전국 광역준설로 투기장 유치조성 ▲복합산업단지 구축 ▲물류창고시설 구축 ▲연안 해상 활성화 유도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 조성 등을 내놴다.

또 해양관광산업 진흥 및 항만 친수성 강화 분야는 ▲항만 내 친수공간 확보 ▲항만재개발 및 시설 활용 ▲여객부두 이용 활성화 등을, 항만개발·관리운영 시스템 선진화 분야에서는 ▲항만 거버넌스 재설계 및 법 제도 개선 ▲항만 운영시스템 효율화 ▲대외교류 협력기반 구축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사업은 국가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순위를 정해 추진, 서해안 물류 중심 항만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의 법정 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장기계획으로서의 한계와 충청권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고려, 충남에 특화된 장기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했다.